

宣言書

吾等은 玆에 我 鮮明의 獨立國인 朝鮮人의 自主民權을 宣言하노라. 此는 對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奮勇케 하야 民族의 恒久如 하나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의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萬造의 大機運에 順應并 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議함이니 是一天地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이며 全人類 共存 同生 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 何物이던지 此를 沮止 抑制치 못함지나랴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獨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 權의 剝奪됨이 무幾何이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幾何이며 民族의 尊榮의 毀損됨이 무幾何이며 新銳의 獨創으로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 補神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幾何 하나

噫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善感을 發露하려 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 銷殘을 興奮 伸張하려 하면 各個人 人格의 正當한 發展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 苦勞의 財產을 遺與치 안이 하려 하면 子孫孫의 永久 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 義務가 民族의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人 마다 方寸의 刃을 揮하야 人類 通性과 時代 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衛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야 何 強을 挫치 못하야 退하야 作하야 何 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 修好條規以來 時種種의 金石 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러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祖國 世界를 植民地 視하고 我 文化 民族을 土味人 視하야 한 것 征服者의 快食 貪婪함이 오 나의 久遠한 社會 基礎와 卓犖한 民族 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러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 爲하야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을 網羅하기 爲하야 吾人은 宿昔의 懲辦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的 破壞에 在치 안이 하노라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 則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 오 決코 舊怨과 一時의 感情으로 則 他를 嫉逐 排斥함이 안이오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 政治家의 功名의 犧牲이 된 不自然 又不合理한 錯誤 狀態를 改善 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한 正經 大原으로 歸還케 함이오다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써 出치 안이 한 兩國 併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等 統計 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 相反한 兩民族間의 永遠 和同할 수 업는 怨濤를 去益 深造하는 今來 實績을 觀하랴 勇果 果敢으로 則 舊誤를 廓正하야 真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한 友好의 新局面을 打開함이며 彼此 間 遠禍 召福하는 捷徑인을 明知할 것 안인가 卽 二千萬 含憤 悲怨의 民衆 威刀으로 則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 和平을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 뿐 안이오다 此로 因하야 東洋 安危의 主軸인 四億 萬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스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生界에 共倒 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 이 명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 獨立은 朝鮮人으로서 하야 金正當한 生命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서 하야 吾人은 出하야 東洋 支持者의 重責을 全케 하노라 하며 吾人은 同時에 日本으로서 하야 하지는 不 安 恐怖로써 脫出케 하는 것이며 卽 東洋 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 平和人 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卽 地區 感情上 問題이 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 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마야호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 도다 凍氷 寒雪에 呼吸을 閉鎖한 것이 彼一時의 勢이라 하면 和風 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이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을 乘한 吾人은 아오 踴躍할 것 업스며 아오 忌憚할 것 업도다 我的 固有한 自由 權을 護全하야 生命의 樂을 飽享할 것 이며 我的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晶할 지로다

公約 三章

- 一、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이니 오즉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 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 一、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 一、一切의 行動은 尙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 금이대까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憲	羅龍煥
羅仁協	梁旬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鯉勳	李鍾一	朴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藝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삼일운동과 삼일대로

2017. 6. 9.
전우용 역사학자

목차

- 一. 삼일운동의 헌정사적 의의
- 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서울
- 三. 삼일운동 100주년의 현실적 의의
- 四. 삼일운동과 서울
- 五. 한성정부 선포
-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삼일운동의 헌정사적의의

제헌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현행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49년 지정
4대 국경일

개천절

삼일절 ; 독립선언일

광복절

제헌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시작

대한민국 건립의
계기
(참고) 미국 독립기념일
= 13주 대표의 '독립선언일'

영토와 인민을
회복한 날

공식 헌법
제정

1920년 제1회 ‘독립기념일’

“3월 1일. 제1회 기념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 이 곳 한인 사회는 온통 명절 기분으로 맞았다. 집집마다 국기를 단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는 중국인 집 2층을 빌려 두 개의 국기를 교차하여 걸었다. 기념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학생 몇이 탄 인력거 위에 태극기가 좌우로 날리는 것이 볼만했다. 웬 일본 여자 셋이 마주 오다가 앞뒤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이것 보라는 듯이 떠드는 것을 만나 기색 좋지 못한 얼굴로 비실비실 달아나는 것은 더욱 볼만했다.” (독립신문. 1920.3.4.)

“내가 나라를 떠나온 지 7년 간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중국 혁명기념일을 당하여 남의 즐거운 경축에 참석할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10년 간 못 보던 저 국기를 다시 달고, 10년 간 못 부르던 저 애국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한 번 올라간 저 국기가 다시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오.” (여운형)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요. 이 날은 한 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요 이천만이 만들었고, 소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피로 만든 날이요.” (안창호)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한 3월 1일. 이천만 대한인은 가는 곳 마다 있는 곳 마다 천년 후 만년 후까지 자자손손 열성과 환희로 지켜 축하할 3월 1일.”

1920년 제1회 ‘독립기념일’

“상해에 있는 대한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날을 지켰는가? 오전 6시부터 상해 시내 한인의 가정에는 부활한 태극기가 날기 시작했다. 상해시내에 이렇게 대한의 국기가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에 비로소 세계 각국인이 모여 사는 상해 한복판에서 “우리는 대한인이다” 하는 표시를 보였다. 매주 일요일과 각국 경축일에 영국 프랑스 미국의 국기가 집집마다 날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었고. 동포들은, 아이들까지도, 며칠 전부터 이 신성한 국경일의 준비를 하여 어제에 이르러 아주 명절 기분이 되었었다. 한 치도 회복하지 못한 옛 강토, 지금 옥중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하지만, 천만대에 기념할 우리 민족의 부활일인 오늘 하루를 무한히 기쁘게 축하하자. 놀자.”

“이곳 수삼 농촌에서는 성대한 독립선언 기념 축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공중에 높이 솟은 태극기가 화풍에 날리아 편편(翩翩)하는 기상은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 같더이다. 이때 마침 국민개병호(國民皆兵號)(46호)가 내도(來到)하였으므로 이를 회중(會中)에 낭독할새 군적(軍籍)에 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혼신열혈(渾身熱血)에 찬 청중은 전기를 통한 듯이 일시에 부르르 떨며 흑흑 느끼는 소리와 함께 피 섞인 눈물을 떨어뜨리더이다. …”군적의 사명을 가진 사자(使者)여! 오시요, 어서 급히 오시요, 너도 나도 우리 군적에 착명(着名)하겠소, 조국이 부르시는 이날에 이 몸을 바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민국 정부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독립신문 1920.3.23.)

1921년 ‘삼일절’

“음울(陰鬱)한 고소(古巢)로부터 활발히 기래(起來)해야 춘만(春滿)한 대계(大界)로 광명히 맥진(慕進)하자고 우렁차게 외치던 이 3월 1일. 죽었던 국가가 부활하고 죽었던 민족이 중생(重生)하노라는 웅장한 규호(叫號)가 칠만리 지구(全球)를 진동하던 이 3월 1일. 이날을 물들이기 위하여 성결한 피를 흘리고 이날을 축(祝)하기 위하여 번제(燔祭)의 살을 태운 이 3월 1일...날 새기를 고대하던 상해 재류 각 동포의 문호(門戶)에는 오전 6시부터 광휘찬란한 태극기가 날기 시작하였다. 우리 한인이 그 중 많이 거주하는 법계(法界) 하비로(霞飛路) 일대는 물론이오 왜노(倭奴)와 그 중 많이 인접(隣接)하여 사는 창여리(昌餘里)에는 태극기의 발사하는 광채로써 그 계내(界內)를 어리웠었다. 왜(倭)에게 대하여는 우리를 보아라 하는 듯하고 다른 외국 사람에게 대하여는 우리는 이족(異族)의 겸제(嵌制)를 받지 않을 대한인이다라고 자랑하였다.” (독립신문 1921. 3. 5.)

“적경(敵京)에 유학하는 우리 학생 백여 명은 지난 3월 1일 우리 독립선언기념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동일 하오 1시경 히비야 공원 음악당 앞 광장에 집합하여 각각 태극기를 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연설을 하였더라. 적의 경시청과 히비야서에서 이를 탐지하고 곧 달려들어 그들의 해산을 명하였으나 불청하고 그냥 만세를 불렀으므로 적은 우리 학생 76명을 검거하다. 적은 이를 취조한 결과 동 7시경 63명은 귀가를 허락하고 국기열(鞠鎬烈) 이하 13인은 그냥 검속하여 취조중인데 그 중에는 황귀경(黃貴瓊) 이하 8명의 여학생이 있었더라.” (독립신문 1921.3.12.)

일제강점기 3월 1일의 명칭

- 해외 민족운동 진영 ; 독립기념일, 독립선언기념일, 삼일절
- 식민 통치자 ; 기미 소요사태, 만세 소요사건
- 조선 내 대중 ; 만세운동, 만세사건

삼일운동의 헌정사적 의의

-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했으며, 이 ‘선언’의 정신은 현행 헌법에도 승계
- 제헌국회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
-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워 독립을 이뤄냈다는 인식을 삼일운동의 정신 및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계승을 통해 드러내고자 함.
- 삼일절을 ‘건국절’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3월 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

삼일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한 만큼, 주권을 위임 받은 정부와 의회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정부 수립에 착수

- 러시아령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고 임시정부 수립.
-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바 있던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표를 선임하여 4월 10일 임시의정원회의를 개최, 다음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13일 공표.
- 서울에서는 4월 23일 서린동 봉춘관 - 현 청계광장 북변 - 에서 국민대표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선포. 국민대표대회는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 대회 of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음. 게다가 이 대회의 임시정부 선포문은 UP통신 보도로 전 세계에 알려짐.
- 연해주와 상해에서 각각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대회가 선포한 임시정부, 즉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승인하고 위치는 상해에 두기로 결정.

9월 6일 상해에서 수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임시정부가 아니라
서울의 국민대표대회가 선포한 한성정부.

- '임시정부'라 한 것은 이천만 민족의 총의로 독립을 선언했으나 영토와 대다수 인민이 적 치하에 있는 형편에서 자유로운 선거에 기초한 의회와 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
- 정부와 의회는 '임시'였어도 국가는 '임시'가 아니었음.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은 서울에서 선포되고 상해에서 실현된 한성정부였음.

기미독립선언서를 관통하는 정신은

민족자결, 호혜평등, 정의와 인도주의의 정신

- 당대 한국인의 시대정신이자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핵심 가치’.

삼일운동은 성별, 종교, 출신지역, 재산의 다과, 학력 등을 따지지 않고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벌인 ‘거족적(擧族的)’ 운동으로서

‘한민족’을 통합한 최초, 최대의 역사적 사건

- 국민이 이념, 계층, 지역, 종교 등으로 분열된 현실에서 ‘통합적 성장’의 계기 부여.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화,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四

삼일운동과 서울

삼일운동 준비 개요

무단통치기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종교시설뿐이었기에, 학생과 종교단체 중심으로 준비 과정 진행.

1918 1월 하순

권동진, 오세창 등 천도교계에서 독립 선언 논의 시작

1919 1월 상순

동경 유학 중이던 송계백이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을 방문,
2.8. 독립선언 계획 전달

1.20.

천도교주 손병희, 교단의 독립운동에 동의

1.28.

기독교계 학생들의 '학생청년단', 관수동 회의에서 청년 주도의 독립선언에 합의

2.11.

장로교인 이승훈과 천도교 간부들 회합. 독립운동 합작 합의

2.12.

세브란스의전 구내 이갑성 집에서 전문학교 학생들이 독립선언 계획

2.20.

박희도 집에서 장로교 감리교 대표들이 모여 개신교계 중심의 독립운동 논의
승동교회에서 '전문학교 학생 간부회의' 개최, 독자적인 운동 계획 수립

2.21.

최남선이 이승훈을 방문하여 범교파 합동 독립운동 제안

2.22.

함태영과 이승훈이 최린을 방문하여 '비폭력 독립선언'으로 할 것에 합의

2.24.

기독교와 천도교의 역할 분담 원칙 확정 / 최린과 한용운, 불교계 동참에 합의

四

삼일운동과 서울

삼일운동 준비 개요 (계속)

무단통치기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종교시설뿐이었기에, 학생과 종교단체 중심으로 준비 과정 진행.

2. 25.

정동교회 내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학생 대표 회합. 운동 계획 확정

2. 27.

천도교 운영 보성사 인쇄소에서 독립선언서 21,000매 인쇄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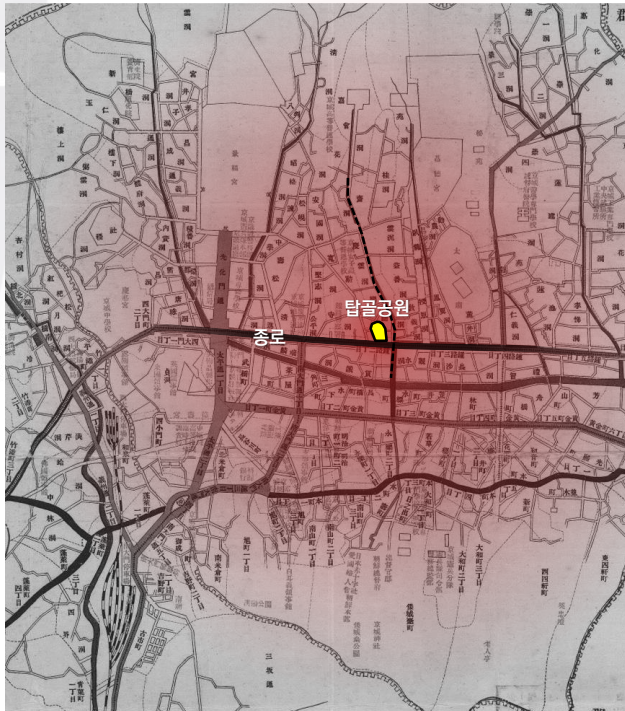
독립선언서 배포

四

삼일운동과 서울

삼일운동 전개과정 개요(3월 1일)

- 오후 2시 민족대표, 태화관에서 선언식.
-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정재용이 독립선언서 낭독. 시위 군중, 시내 각처로 확산.



- 종로 - 광고 - 경성부청 앞 - 남대문 - 의주통 - 프랑스영사관
- 종로 - 기념비전 - 대한문 앞 - 구리개 - 미국영사관/경복궁
- 종로 - 소공동 - 진고개 - 총독부 방면

“독일영사관에서 회정하여 의주통을 지나…승례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진고개 골목으로 돌아섰다…
헌병들이 양편 손에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남산 밑에 있는 경무총감부로 연행해 갔다… 총감부 마당에 꿇어 앉은 사람들도 새 사람이 잡혀올 적마다 마주들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다.” (최은희)

- 밤 7시경 도심부 집회 종료. 서울 외곽으로 시위 확산.

四

삼일운동과 서울

삼일운동 전개과정 개요(3월 2일 이후)

2일

서울 거리 전역에서 시위 전개. 학생, 노동자 400여 명 종로경찰서로 행진

3일

고종 국장일

4일

서울 시내 도처에 격문 부착.

5일

1만 명 이상 참여 대규모 시위

- 남대문정거장 - 조선은행 - 종로

- 남대문정거장 - 남대문 - 태평동 - 남대문 - 대한문 - 황금정 1정목 -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유혈사태. 75명 연행.

8일

용산 조선총독부 인쇄소 노동자 시위.

9일

전기회사 차장과 운전수 파업. 동아연초회사 직공 시위.

11일

종로 상가 전면 철시 단행.

22일

봉래동 노동자 시위.

26일

시내 20여 곳에서 산발적 시위.

27일

용산 철도공장 노동자 파업 시위.

五
한성정부
선포

3월 1일 직후부터 임시정부 조직 논의 시작.

4.2. 인천 만국공원에서 비밀 회합,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 선포 결정

4.23. 서린동 봉춘관에서 전국 13도 대표 25인 국민대회 개최.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임시정부 약법’ 제정.

집정관총재	이 승 만
국무총리	이 동 휘
외무총장	박 용 만
내무총장	이 동 념
재무총장	이 시 영
군무총장	노 백 린
법무총장	신 규 식
학무총장	김 규 식
교통총장	문 창 범
노동총장	안 창 호
참모총장	유 동 열

약법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행복을 증진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과 일체 외교의 권한이 유함.
	제5조. 국민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협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五 한성임시정부 선포

1919. 4. 23.
한성 임시정부
국민대회 취지서

출처 : 국내 독립운동 · 국가수호 사적지 (독립기념관)

國民大會起首書

大韓民國臨時政府國民大會起首書

我國國民自甲午以後之民族也其所以受此奇恥大辱者皆由於甲午之戰也甲午之戰我國之戰艦皆被沒收而我國之領土亦被割奪矣此皆由於甲午之戰也

我國民自甲午以後之民族也其所以受此奇恥大辱者皆由於甲午之戰也甲午之戰我國之戰艦皆被沒收而我國之領土亦被割奪矣此皆由於甲午之戰也

我國民自甲午以後之民族也其所以受此奇恥大辱者皆由於甲午之戰也甲午之戰我國之戰艦皆被沒收而我國之領土亦被割奪矣此皆由於甲午之戰也

我國民自甲午以後之民族也其所以受此奇恥大辱者皆由於甲午之戰也甲午之戰我國之戰艦皆被沒收而我國之領土亦被割奪矣此皆由於甲午之戰也

我國民自甲午以後之民族也其所以受此奇恥大辱者皆由於甲午之戰也甲午之戰我國之戰艦皆被沒收而我國之領土亦被割奪矣此皆由於甲午之戰也

國民大會 十三道代表者

李晚津	李容瑛	張美芝	程英	李成世	李承熙	金承基	金顯
林秉永	宋之憲	李東旭	張美芝	程英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成世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金顯	李承熙	金承基

4.23. 보신각 앞,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앞에서
임시정부 선포를 알리는 시위
UP 통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짐.

9.13.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실현

삼일대로

- 만세 시위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것을 기념.

1966.11.26.

건지동 7번지 안국동 로터리 ~
충무로 2가 구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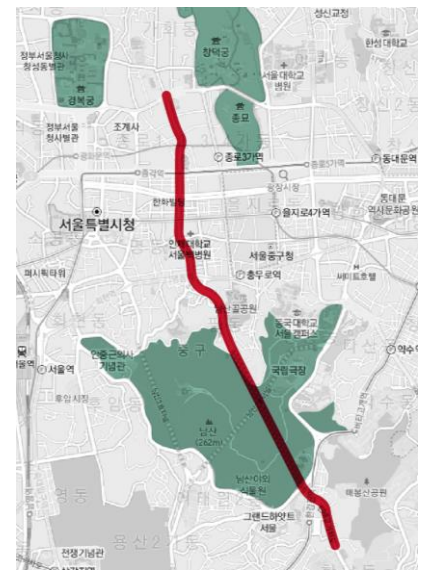
1984.1.7.

운니동 114-8번지 덕성학원 ~
충무로 2가 60-3번지
세종호텔 구간으로 변경.



2010.4.22.

재동 99-1 안국역 ~
한남동 726-110 한남고가차도
구간으로 변경.
삼일대로로 명칭 변경.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 종로구 종로2가 38
- 만세 운동이 시작된 곳
- 원각사 - 연방원 - 한성부 - 민가
- 1899. 3. 공원 조성 개시.
- 1902. 팔각정과 음악당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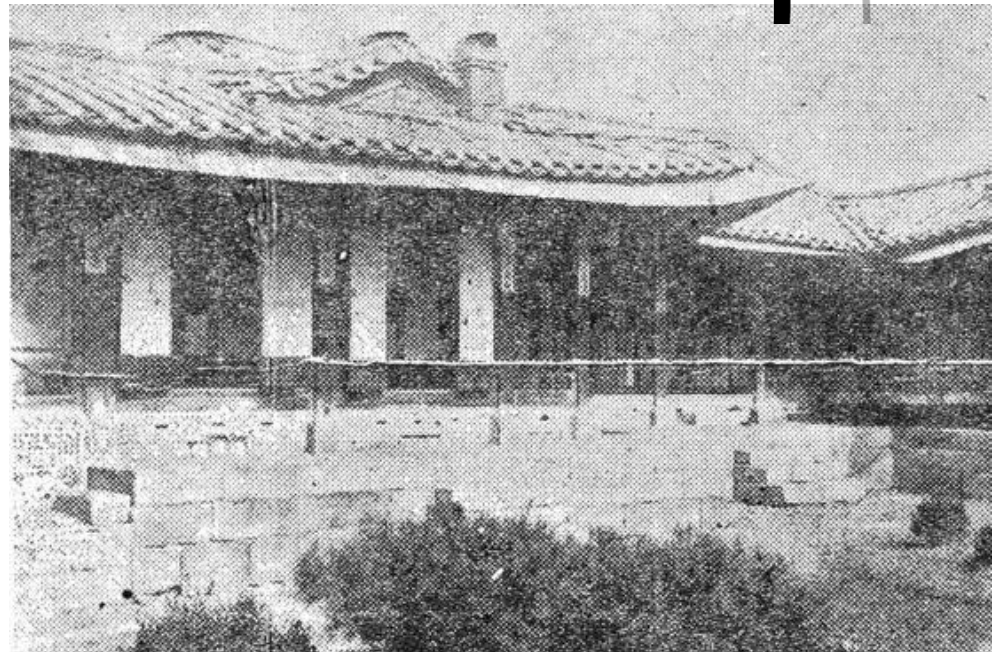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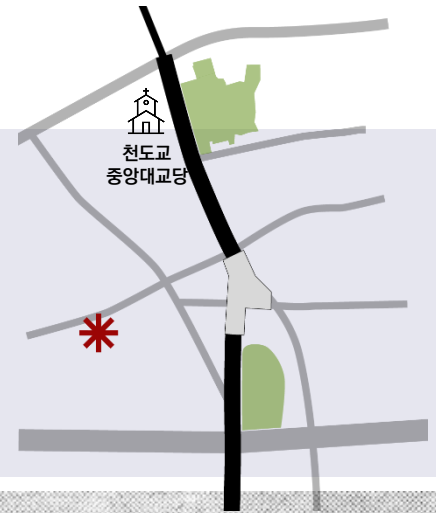


탑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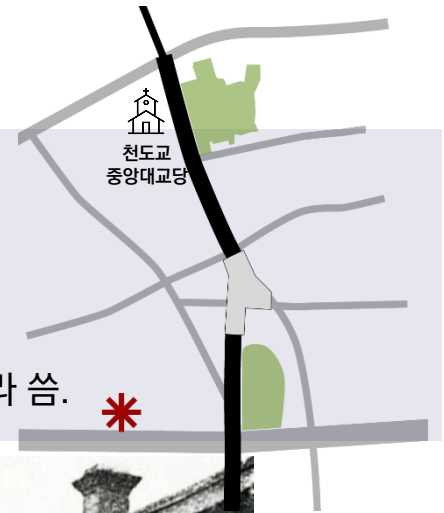
태화빌딩

- 종로구 인사동 194
- 능성 구씨가 - 순화궁 - 이완용 저 - 명월관 지점 - 태화여자관 - 태화빌딩
- 3.1. 태화관 별유천지 6호실(태화정)에서 민족대표 선언식.
현 하나로빌딩 뒤 주차장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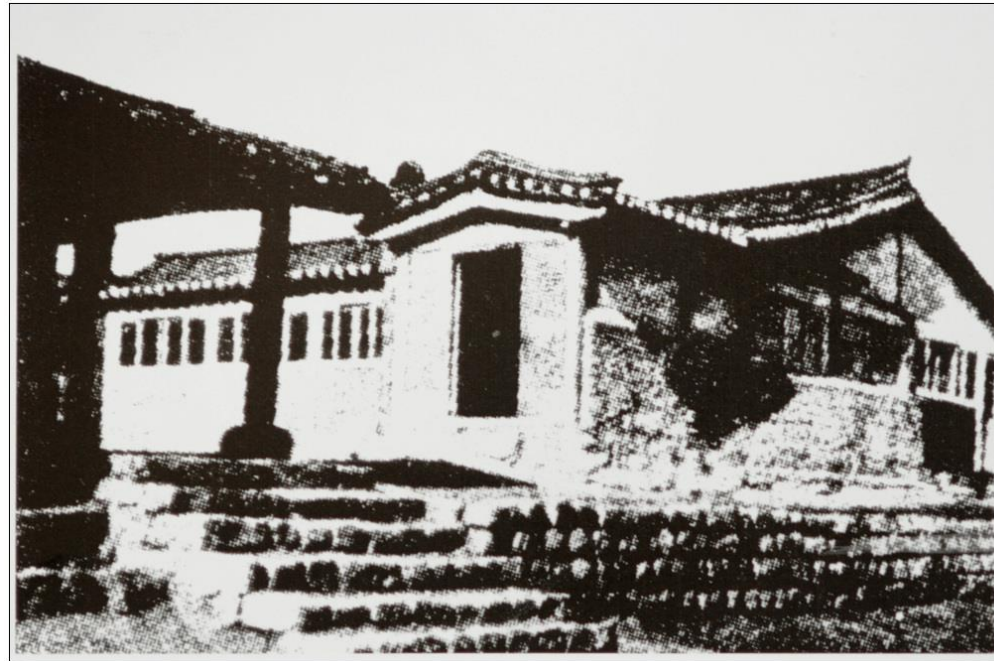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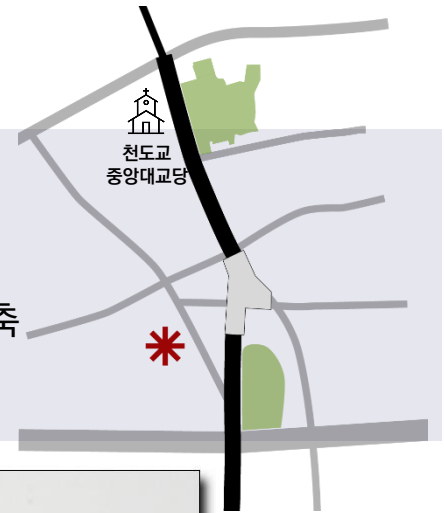
YMCA 회관

- 종로구 종로2가 9
- 기독교계 학생들의 삼일운동 준비 장소.
- 1903.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총회
- 1907.5. 착공, 11.14 상량식. 11세이던 황태자가 '1907년'이라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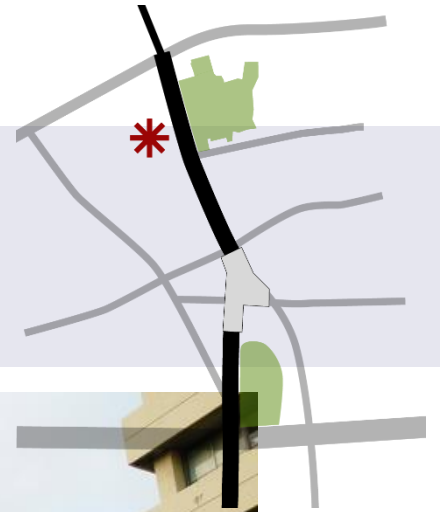
승동교회

- 종로구 인사동137
- 김원벽 등 장로교계 학생들의 삼일운동 준비 장소.
- 1905 한옥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 1912 벽돌 예배당 신축
- 절골예배당, 중앙예배당, 첩실교회



천도교 중앙대교당

- 종로구 경운동 88
- 건립비 일부를 삼일운동 자금으로 전용
- 1919.7. 착공, 1921.2. 준공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중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

- 종로구 계동 1
- 송계백이 현상윤에게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알린 곳.
- 1918 기호학교, 1910 사립 융희학교와 통합, 중앙학교로 개칭. 1917 현위치로 이전.



보성사 터

- 종로구 수송동 44 수송공원 내.
- 기미독립선언서 인쇄처.
- 3.1 “조선독립신문” 창간호 발행처.
- 1905 내탕금으로 설립되었다가 천도교로 이관.



안국동 사거리

- 3.1운동 당일 저녁 시위가 있던 곳.
- 학교 밀집 지대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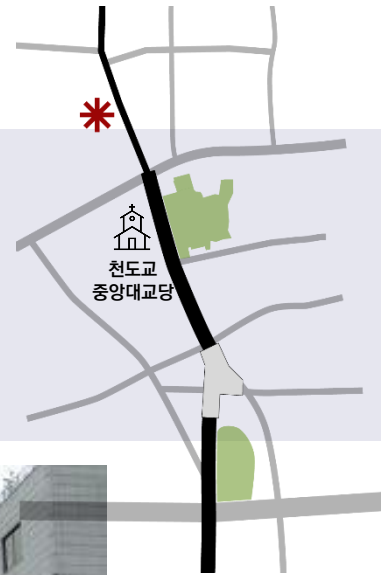
손병희 집터

- 종로구 가회동 170
- 2.28. 민족대표 상건례 및 독립선언 절차와 장소에 대해 최종 결정한 곳.



최린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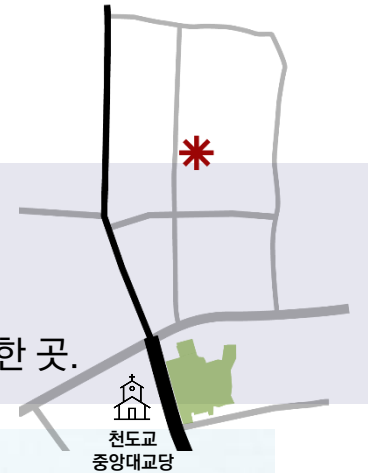
- 종로구 재동 83
- 현상윤, 최남선, 최린, 송진우 4인이 2월 초 3.1운동을 계획한 곳.
- 현 헌법재판소 북쪽 지하주차장 입구
- 1922-1927 이상재 거주.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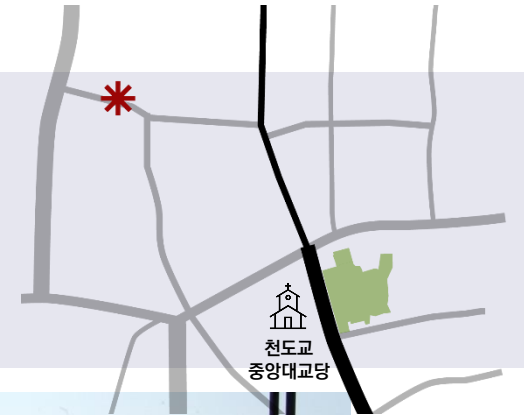
김성수 집터

- 종로구 계동 130
- 1918 김성수가 김사용으로부터 매입, 거주.
- 2월 11일 이승훈과 송진우가 만나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합동에 합의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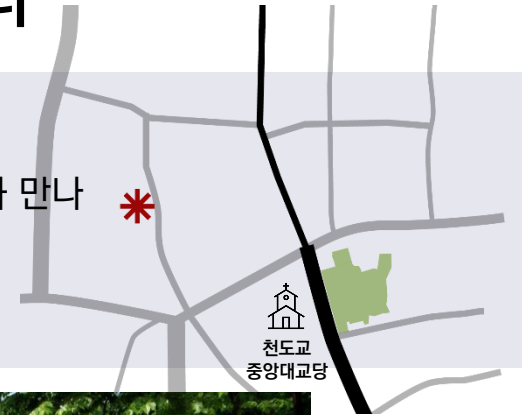
김승희 집터

- 종로구 소격동 125
- 2.17. 이승훈, 송진우, 최남선 등이 회합하여 천도교 기독교 연합 운동 방침을 재확인한 곳.
- 현재 도로에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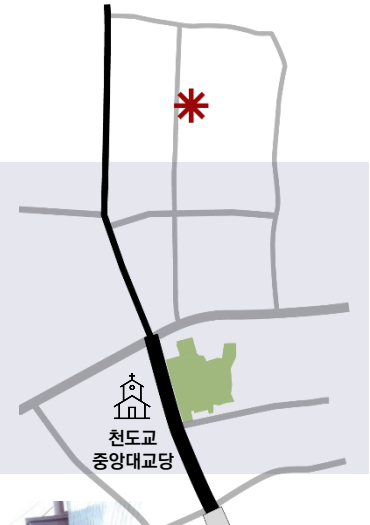
천도교 중앙총부 터

- 종로구 송현동 34. 덕성여자중학교 내
- 2.24. 천도교의 손병희, 최린이 기독교의 이승훈, 함태영과 만나 운동의 일원화를 확정한 곳.
- 1921-1934 보성전문학교



유심사 터

- 종로구 계동 43
- 불교잡지 '유심' 발행처
- 2.24. 최린이 한용운을 찾아가 불교계의 동참을 협의한 곳.
- 현 만해당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이종일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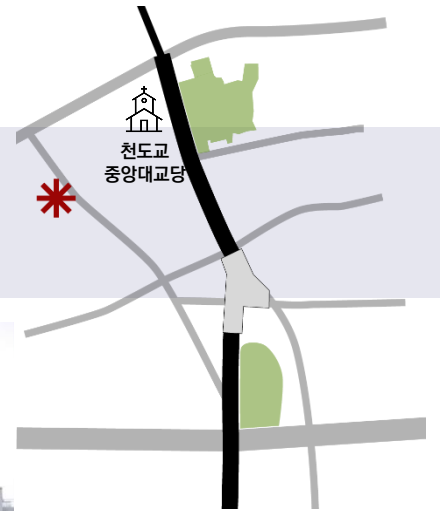
- 종로구 경운동 85
-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한 곳.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경성서적조합 사무소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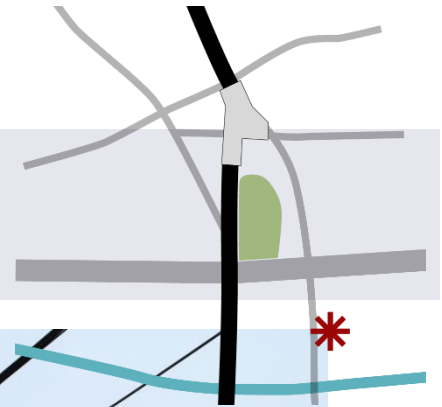
- 종로구 관훈동 155
- “조선독립신문” 제2, 3, 4호 인쇄처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대관원 터

- 종로구 관수동 144
- 1.27. 서울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단 회합 장소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강기덕 숙소 터

- 종로구 안국동 37. 덕성여고 동문 앞마당
- 2월 초순부터 보성상업법률학교 학생 강기덕이 중등학교 학생들을 규합한 곳.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사동궁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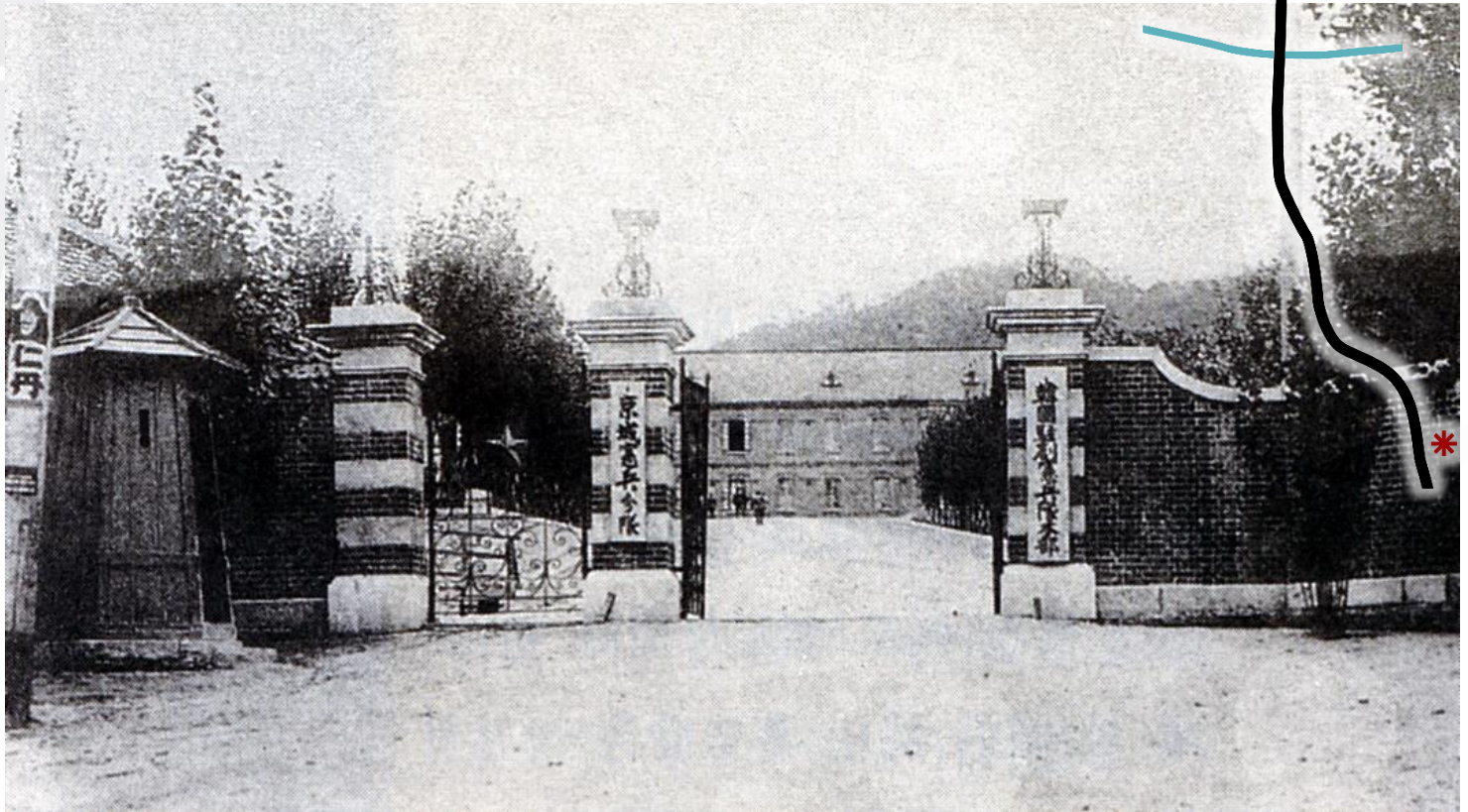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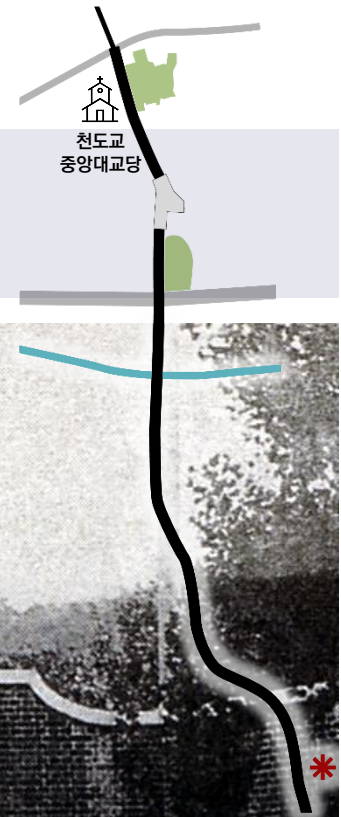
- 종로구 관훈동 192-196
- 의친왕 이강 저택.
- 11월 상해로 망명하려다 실패한 의친왕 이강의 저택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경무총감부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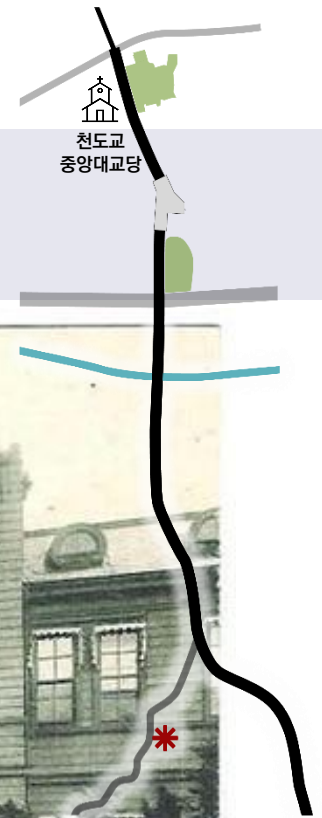
- 중구 필동2가 84-1. 남산골 한옥마을
- 3월 1일 체포된 시위대가 구금됐던 곳.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조선총독부 터

- 중구 예장동 8-145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자리
- 3월 1일 일부 시위대가 행진 목표로 삼았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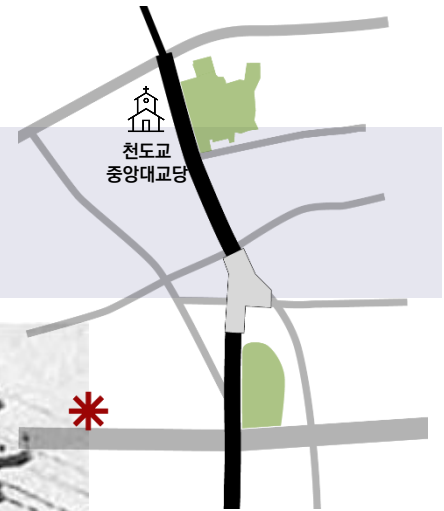


(京197)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of corca in seoul. 府督總鮮朝城京 (所名鮮朝)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종로경찰서 터

- 종로구 종로2가 8
- 시위대 구금 장소.



六
삼일대로 주변의 삼일운동 사적

01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02

삼일운동은 정의, 인도주의, 세계평화, 인류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응축된 역사적 대사건이다.

03

삼일운동은 신분 계급 지역 종교 이념 성별 등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은 거족적 민족운동이다.

04

삼일대로는 삼일운동의 발상지이자 중심 무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은 대표 도로이다.

05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이 도로에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국민 재통합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06

삼일운동 대표가로 조성은, 삼일운동 정신을 길이 보전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감사합니다.